

2008. 7. 7 제194호

세계도시동향

세계도시

2008. 7. 7 제194호

목 차

[벤치마킹 사례]

뉴욕市 공공도서관 체계와 서비스

문화·디자인

1. 대중교통 공공장소에 벽면부착식 휴게공간 도입 (뉴욕)
2. 시민과 함께 템스강 탐사 (런던)
3. 식물 줄기 모양의 '패션과 디자인 단지' 문 열어 (파리)
4. 런던을 볼 수 있는 망원경 설치 (뉴욕)
5. 도심 공원에서 무료 영화 상영 (뉴욕)
6. 낙후된 버스정류장을 시민 공간으로 조성 (로스앤젤레스)
7. 단편영화제 '쇼트 쇼트 필름 페스티벌 & 아시아 2008' (도쿄)
8. 문화재 지도 발행 (북경)

산업·경제

9. 지역 경제 부흥을 위한 '지역 제휴형 모델 상가 사업' (도쿄)
10. 市 방문자 중 비즈니스 관광객이 절반 (브라질 상파울루市)

목 차

행정·재정

11. 행정·사업비용 항목 28% 삭감 (상하이)
12. 대런던위원회를 대표하는 국제사무소의 효율적 이용 (런던)

방재·안전

13. 대중교통 이용 안전을 위한 전담반 설치 (런던)
14. 지하철에 안전감시시스템 설치 (상하이)

도시환경

15.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택시산업에 100만 파운드 지원 (런던)
16. 차, 친환경적인지 따져보고 삼시다 (런던)

도시교통

17. 자전거도로 만들기 200년 계획 시행 (오하이오주 콜럼버스市)
18. 고객의 입장에서 대중교통 서비스 질 평가 (워싱턴 D.C.)
19. 혼잡통행료 실시 (영국 맨체스터市)
20. 센강을 오고가는 대중교통 선박 운영 (파리)
21. 자전거 무료 임대 공익사업 실시 (상하이)

도시계획·주택

22. 최상의 공공서비스 제공 위해 '상호이해를 위한 협약' 체결 (런던)

[벤치마킹 사례]

뉴욕市 공공도서관 체계와 서비스

<주요 내용>

- 뉴욕市는 브롱크스, 맨해튼, 스탠포드에 소재한 85개 공공도서관으로 구성된 ‘뉴욕 공공도서관 시스템’(New York Public Library System)을 갖추고 있음.
- 맨해튼에는 전문 주제를 다루는 4개의 연구도서관(Research Library)을 포함한 5개의 중앙도서관(Central Library),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뉴욕市 곳곳에 산재한 지역분관도서관(Neighborhood Branch Library)이 있음.
- 브롱크스와 스탠포드에는 각각 자치구 중앙도서관(Borough Center Library)과 지역분관도서관 체계로 운영되고 있음.

<표 1> 뉴욕 공공도서관의 분포

구 분	중앙도서관(Central Library)	자치구 중앙도서관(Borough Center Library)	지역분관도서관(Neighborhood Branch Library)	비고
브롱크스	-	1	33	
맨해튼	5	-	34	연구도서관 4개관
스태튼섬	-	1	11	
전 체	5	2	78	

- 뉴욕市의 공공도서관은 복합 문화시설과 복지시설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 맨해튼에 있는 4개의 연구도서관은 전시회와 문화행사를 개최함. 연구도서관에서 대규모 사진 및 회화 등 전시회가 열리며, 지역분관도서관과 전문도서관의 열람실에도 소규모 전시회가 개최됨.
- 공공도서관은 미술관, 박물관, 공연장과 함께 시민은 물론 뉴욕을 방문하는 모든 사람의 문화적 향유에 대한 요구에 부응함.

·읽기쓰기센터(Centers for Reading & Writing)를 주요 도서관에 설치함.
교양 프로그램, 자원봉사자에 의한 소그룹 지도, 컴퓨터 교육, 학생들의 작
문 출간, 평생학습, 책을 통한 가족화합, 독서 지도 등 문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함.

<표 2> 뉴욕 인문사회과학 연구도서관 현황

1. 공간 구성 현황

규모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Library(지상4층)	
공간구성	실 구성	서고, 사무실, 열람실, 연구실, 대회의실, 세미나실, 카페테리아, 옥상정원
	층별 구성	지상 1층: Celeste Bartos Forum, Dorot Jewish Forum 지상 2층: Microform Reading Room, 갤러리, 전시홀, 정보센터, Library Shop, Classrooms, Visitor's Theater, 강당, 지도실 지상 3층: 보관실, Slavic and Baltic Division, Asian and Middle Eastern Division, Center for Scholars and Writers 지상 4층: Art and Architecture Reading Room, Prints and Photographs Reading Room, General Research Division, Rose Main Reading Room

2. 주요 실 현황

수장고	규모	
	보유현황	장서량(1540만 4073권), 단행본(835만 3773권), 잡지(3만 1673종), 마이크로 자료(660만 종), 기록 및 문서자료(31만 9000종), 그래픽자료(433만 종), 오디오 자료(55만 8000종), 사진 및 판화(5000만 점 이상) 주요 소장품: 구텐베르크 '42행 성서', 토머스 제퍼슨의 <독립선언문> 자필 원고, 갈릴레오의 노트 등 역사적 사료와 희귀도서 소장
열람실	규모	
	열람방법	폐가식

3. 전시 및 문화 프로그램 현황

전시 프로그램	60만 개의 이미지를 보여주는 디지털 갤러리 운영, 다양한 주제의 전시회가 열리고 있음. 일본의 서적과 예술에 관한 특별 전시와 남성의복에 관한 전시 등이 개최됐음.
문화 프로그램	도서관견학프로그램, 성인교양프로그램(Centers for Reading and Writing), 어린이·청소년프로그램(Teen Central), 컴퓨터 무료교육, 영어무료교실, 단편소설 토론, 낭독 프로그램 등

4. 운영 현황

관리주체	공공과 민간의 협력에 의해 이뤄지고 있음.
운영기금	1억 2637만 8000달러(시, 주, 연방정부에서 운영 예산 지원, 개인, 재단, 기업 등의 모금을 통한 운영, 행사를 통한 수입 등으로 운영예산 충당)
운영조직	총 인원수: 1023명(월급제-773명, 시간제-250명)

<해설 및 평가>

- 뉴욕市 공공도서관은 세계적으로 자랑하는 장서 규모와 도시 전체에 거미줄 처럼 연결된 도서관 분포로 미국의 지식과 문화적 역량을 대변함.
- 공공도서관 운영은 전통적으로 공공과 민간의 협력으로 이뤄짐.
 - 공공은 市, 州, 연방정부에서 운영 예산을 지원하고 있음. 민간부분인 개인, 재단, 기업 등을 통한 모금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행사 수입 등으로 운영 예산을 충당하고 있음.
- 뉴욕市 공공도서관이 정보와 지식의 저장소 역할을 하는 도서관과 함께 대 시민 복지서비스와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문화 복지 시설 역할을 하고 있음.

<서울시정의 현황과 문제점>

- 서울시의 공공도서관은 지역사회 문화시설로서 단관 중심의 운영체제임.
- 시민의 입장에서는 동일한 도서관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그 역사와 운영 주체에 따라 각 도서관 간의 프로그램 및 서비스의 차이가 있음.

<표 3> 서울시 도서관 운영주체별 현황

구분		운영주체	개 수	비고
국립	국립도서관	문화관광체육부	2	현재 디지털 도서관 건립 중
특수	국회도서관	국회	1	
공공	시립공공도서관	서울시교육청	22	
	구립공공도서관	자치구(공단, 법인 등에 위탁)	41	14개 건립 중
	사립공공도서관	기업, 재단 등	7	
	학교도서관 개방	서울시교육청	39	2009년까지 6개 추가 예정
	학교 복합화		5	
	공립문고(새마을)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324	
공공	공공특수도서관(장애인시설)	복지법인 등	8	
기타	사립문고(어린이문고)	개인, 단체	37	
소계			472	

*2007한국도서관연감, 서울시 도서관 길잡이 홈페이지 홈페이지 참조. 문고현황은 새마을운동중앙회 내부자료.

<벤치마킹 시행방안>

- 서울시 대표도서관을 통한 공공도서관 체계(Seoul Public Library System) 구축이 필요함.
 - 서울시정의 전문도서관과 향후 서울시 공공도서관의 대표도서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도서관을 서울시 청사 본관을 활용해 설립함.

- 공공도서관 연계망 운영체제의 지향이 필요함.
 - 지방자치 제도의 장기적인 발전과 창의문화 도시 구현을 위해 서울시가 연계망을 중심으로 한 공공도서관 운영 체제를 적극 제도화해야 함.
 - 도서관끼리 연계해 프로그램을 기획할 수 있어야 함. 문화프로그램의 운영에 있어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프로그램의 성패를 좌우하므로, 문화 관련 시민단체와의 연대를 통한 지속적인 프로그램 개발과 관리가 중요함.

- 도서관 설립에 있어 민간부문의 적극적인 참여를 끌어들이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야 함.

<벤치마킹 기대효과>

- 시청사를 활용한 대표도서관은 서울의 문화수준을 높이는 상징이 될 것임.

- 연계망 운영은 조직과 운영에 있어 효율성을 기할 수 있음.
 - 도서자원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로 공공도서관은 서울 전역의 문화자원으로서 기능할 수 있음. 또한 도서관에서 운영되는 각종 프로그램들은 중복되지 않고 각 지역의 특성에 따라 다양화될 수 있음.

/조권중 창의시정연구본부 연구위원(kjchoh@sdi.re.kr)

문화 · 디자인

1. 대중교통 공공장소에 벽면부착식 휴게공간 도입 (뉴욕)

○ 뉴욕시는, 2008년 5월 국제 현대가구 박람회(ICFF)에 출품된 작품 중 대중교통 공공장소의 휴게공간을 디자인한 'Leaning Mold'를 실제 도입하기로 함.

- 지하철이나 버스를 기다릴 때 앉을 공간이 부족한 것에 착안해 승객에게 휴게공간을 제공함.
- 벽면 부착식이라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아 혼잡을 방지함.
- 앉거나 기대거나 소지품을 올려놓을 수 있는 등 대안 가구로서의 기능에 미학까지 갖춘 것으로 평가됨.



Leaning Mold

(www.nydailynews.com/ny_local/2008/05/31/2008-05-31_artist_crafts_new_way_for_commuters_to_w.html)

>>> 전문가 검토의견

- 뉴욕市는 세계 대도시 중에서도 변화가 빠른 도시이고, 시민의 움직임도 빠른 도시임. 대개의 경우 뉴욕市와 같은 대도시에서 대중교통의 쾌적성을 기대하기 힘든데, 'Leaning Mold' 시스템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의 쾌적성과 편리성을 도모할 것으로 판단됨.
- 서울시의 대중교통은 이용자가 많아 항상 혼잡하다고 할 수 있음. 특히, 도시 철도역사와 중앙버스전용차로 정류장 등은 대표적으로 혼잡도가 높은 대중교통시설임.
- 이러한 시설에 뉴욕시와 같은 'Leaning Mold' 시스템을 적용한다면 벤치를 설치하는 것보다 공간 활용에 있어 효율적일 것으로 보이고, 관리도 용이할 것으로 판단됨.

/이신혜 도시기반연구본부 연구위원(newsun@sdi.re.kr)

2. 시민과 함께 템스강 탐사 (런던)

- 런던市는 2008년 10월부터 도시 역사를 함께 해 온 템스강에 대한 대대적인 역사·문화 조사인 '템스 탐사 프로그램'(The Thames Discovery Programme)을 시행하기로 함.
- 도시와 강의 역사에 대한 새로운 자료를 구하기 위해 템스강변 20개 지점을 발굴할 계획임.
- 주관단체는 런던市가 참여하는 '템스 연안역 파트너십'(Thames Estuary Partnership)이며, 민간 전문단체인 'Thames Explorer Trust'와 협력해 발굴조사를 진행할 계획임.
- 역사적 자료 발굴뿐 아니라 강과 함께 사는 시민이 바로 우리 발 아래 역사의 숨결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도시의 역사를 함께 찾는 데 중점을 둠.

- 발굴 작업 동안 다양한 현장학습 프로그램도 진행되며, 유적 발굴 자원봉사부터 인터넷 블로그 참여 등 시민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 중임.
- 런던시장이 주최하는 연례행사인 ‘템스 페스티벌’에서 탐사 관련 전시, 홈페이지와 블로그를 통한 탐사과정 정보 공유 및 소통의 장 마련 등 최소 2만여 명의 런던시민이 탐사 작업에 참여할 것으로 기대됨.

(www.bbc.co.uk/london/content/articles/2008/05/22/thames_discovery_feature.shtml)

>>> 전문가 검토의견

- 런던시는 영국과 런던을 상징하는 템스강을 이수(利水) 단계를 넘어 친수(親水) 공간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기초정책을 착실히 진행하고 있음.
- 시민이 참여하는 고고학적 탐사작업 계획이 성공하면 템스강을 더욱 유명한 명소로 만드는 계기가 될 것임.
- 수변 역사문화 발굴작업의 주체를 시민으로 함으로써, 참여에 따른 애정과 관심을 증폭하는 효과뿐 아니라 시민정신과 자부심 함양에 기여할 것임.
- 한강이 문화와 문명의 젓줄로서 르네상스를 이루려면 수변 역사문화에 대한 심층 조사와 더불어, 이에 대한 발굴과 회복계획이 먼저 있어야 함.
- 시민이 자발적으로 역사문화 회복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관련 단체 조직 및 성금 모으기 등의 계획이 필요함.

/홍석기 창의시정연구본부 연구위원(skhong@sdi.re.kr)

3. 식물 줄기 모양의 ‘패션과 디자인 단지’ 문 열어 (파리)

- 파리는 2008년 가을 ‘패션과 디자인 단지’(Cité de la mode et du design de Paris)를 오픈할 계획임.
- 패션의 도시 파리를 대표하는 이 건물은, 식물의 거대한 줄기모양이라는 독특한 외관으로 많은 화제를 모음.

- 센강에서 15m 높이에 있는 유리테라스는 마치 센강 위를 걷는 느낌을 주며, 각 층을 유기적으로 연결함.
- 원래 3층짜리 쇼핑몰 건물이었는데 이번에 리노베이션했음.
- 총 18개월의 공사기간에 약 4000만 유로(약 640억 원)가 소요됐음.
- 건물 1층에는 13개의 패션 및 디자인숍이 들어서며, 프랑스 패션 연구소도 이곳에 자리 잡을 예정임.



(www.linternaute.com/imprimer/paris/magazine/dossier/2008/1-cite-de-la-mode.shtml)

>>> 전문가 검토의견

- ‘패션과 디자인 단지’는 파리의 패션·디자인 저력을 기반으로 설립된 것으로, 패션·디자인 관련 교육기능에 중점을 둬으로써 그 저력을 더욱 강화할 것임. 또한 연구·교육 기능과 함께 상업적 기능을 배치하고 시민에게 밤낮으로 개방함으로써 살아있는 공간으로 기획함.
- 단지 내에 유치된 프랑스 패션연구소는 패션·디자인 관련 학생을 육성하고, 디자인과 패션 전시 전용의 이벤트 공간을 마련해 입체적 학습과 실습이 가능하도록 함.
- 패션과 디자인 단지가 있는 퐁비악 지역은 프랑스 국립도서관과 파리 건축학교 등이 있는 곳으로, 단지 완성과 함께 새로운 문화의 축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됨.

- 서울시도 서울패션센터를 운영해 패션산업을 정책적으로 육성하고 있지만, 연구·교육기능이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음.
- 센터를 하나 지을 때도 주변 경관에 어울리는 심미적인 디자인을 적용하고, 이를 시민이 자유롭게 활용하게 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은 중요함.

/백선희 창의시정연구본부 부연구위원(seonbaik@sdi.re.kr)

4. 런던을 볼 수 있는 망원경 설치 (뉴욕)

- 뉴욕市와 런던市는 두 도시의 모습을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망원경 모양의 구조물을 런던市 템스강변과 뉴욕市 브루클린에 설치해 시민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선사함.
- 1884년 한 과학자가 런던과 뉴욕을 연결하는 터널을 뚫으면 두 도시가 소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세웠음.
- 이 아이디어에 착안해 망원경 구조물을 만들고, 지구를 관통하는 터널을 뚫는 대신 각 도시에 설치된 HD 카메라를 통해 수집된 도시의 생활상을 실시간 보여주는 영상전송 기술 방식을 도입함.



뉴욕과 런던을 잇는 망원경

망원경 개념도

(www.treehugger.com/files/2008/05/who-buried-the-telescope.php)

(www.cnn.com/2008/WORLD/europe/05/22/scope.project)

5. 도심 공원에서 무료 영화 상영 (뉴욕)

- 뉴욕시는 7~8월 매주 목요일마다 브루클린 공원에서 영화를 무료로 상영하기로 함. 또한 이 기간에 무료 필라테스와 뜨개질 강좌도 진행될 예정임.
- 브루클린 공원은 과거에 주차장으로 사용됐으나 뉴욕시가 이를 도심 공원으로 잘 관리함.
- 공원의 기능이 커짐에 따라, 향후 몇 년 안에 프로스펙트 공원(Prospect Park)까지 연결되는 산책로를 포함한 대규모 확장공사가 진행될 예정임.
- 새로 조성되는 공원에는 유명 공공예술 작품을 설치할 계획임.



브루클린 공원의 무료 영화 상영의 밤.

(www.nydailynews.com/ny_local/brooklyn/2008/05/18/2008-05-18_brooklyn_bridge_park_an_urban_oasis.html)

한줄 뉴스

<브라질>

- 상파울루시, 방치·오염된 지역을 개선해 공원 33개 조성
- 쿠리치바시, 최근 3년간 자전거도로 2배 확장해 자전거 이용 시민 증가
- 리우데자네이루시, 야외에서 공연하려면 관객 1000명당 2그루씩 나무 심기 의무화

6. 낙후된 버스정류장을 시민 공간으로 조성 (로스앤젤레스)

○ 로스앤젤레스市的 한 시민단체는, 버스정류장은 시민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 잠시 머무르는 곳이 아니라 함께 어울려 휴식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자 버스정류장을 ‘공동 거실’(Community Living Room)로 만듦.

- 이런 시도는 몇 년 전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市에서 처음 시작되었는데, 사람이 많이 모이는 상점이나 미용실 앞 공간을 시민단체와 주민이 협력해 가구나 소품을 가져다 놓아 환경을 개선함.

·동네에 주민만의 공간이 생기는 것은 물론, 주변 환경도 개선됨.

- 이 아이디어를 로스앤젤레스市에도 적용해 저소득층이 사는 동네를 중심으로 사람이 주로 모이는 곳과 낙후된 버스정류장을 개선하고 있음.

·저소득층이 사는 동네의 버스정류장은 지저분한 광고가 붙은 낡은 벤치가 전부이거나 이것마저도 없는 경우가 많아 대부분의 시민이 서서 버스를 기다림.

·이미 15개의 공간을 만들었고 7곳의 다른 공간도 주민과 함께 작업하고 있음.

(www.nytimes.com/2008/04/26/us/26busstop.html?ex=1366948800&en=0e729d132746eb13&ei=5088&partner=rssnyt&emc=rss)

7. 단편영화제 ‘쇼트 쇼트 필름 페스티벌 & 아시아 2008’ (도쿄)

○ 아시아 최대급 단편영화제 ‘쇼트 쇼트 필름 페스티벌 & 아시아’가 2008년 6월 6일부터 개최됨.

- 지금까지는 ‘쇼트 필름 페스티벌’과 ‘쇼트 필름 페스티벌 아시아’의 2개 영화제가 동시에 개최됐지만, 2008년에는 세계 각국에서 출품한 약 3000개의 작품 중 엄선된 80여 개의 작품을 상영함.

- 도쿄都是 이번 영화제 공동개최로 영화제 발전을 지지하고 영화제 방문객에게 도쿄의 매력을 홍보할 계획임.
 - 2개 부문 우수작품에는 도쿄 도지사상이 수여됨.
 - 전체 3개 부문 각 우수상 작품 중에 최고상인 그랑프리를 선정함. 그랑프리에 선정된 작품은 2009년 미국 아카데미상 단편 부문에 출전할 수 있음.
- (www.metro.tokyo.jp/INET/EVENT/2008/05/21i5l100.htm)

8. 문화재 지도 발행 (북경)

- 북경市는, 올림픽 기간에 대량으로 유입될 여행객이 북경을 좀더 편리하고 즐겁게 관광할 수 있도록 ‘북경市 문화재 지도’를 발행할 예정임.
 - 북경市에는 3550개의 문화재 및 유적지가 있고, 그 중 자금성, 만리장성, 이화원, 천단, 북해, 공묘, 계태사, 용화궁, 백운관 등이 유명함.
 - 북경市는 문화재 소개 및 위치에 대해 영어 및 중국어로 제작한 지도를 2008년 말까지 600만여 부를 배포할 계획임.
 - 수도공항, 5성급 호텔, 올림픽 경기 장소, 고급 레스토랑, 관광 명소 및 각국 대사관 등에 무료로 배포함.
- (zhengwu.beijing.gov.cn/gzdt/bmdt/t972764.htm)
- (www.bjwww.gov.cn)

한줄 뉴스

<상하이>

- 2010년 상하이엑스포 개최 앞두고, 이색 전통음식 거리 조성
- 490여 개 금융기구와 10만 명 이상의 금융업 종사자가 밀집한 금융무역구에 금융거주타운 건설 계획
- 상하이 서부 최대의 관광투어센터 건설 계획
- 2008년 5월, 세계 최대 직경의 지하터널 일부 개통

산업 · 경제

9. 지역 경제 부흥을 위한 ‘지역 제휴형 모델 상가 사업’ (도쿄)

○ 도쿄都는 2005년부터 상업시설의 환경, 복지, 관광 등 지역 요구에 대응한 지역 부흥 사업이나 마을 만들기 사업을 지원하는 ‘지역 제휴형 모델 상가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그 중 첫 번째는 ‘록본기(六本木) 상점가 회유형(回遊型) 쇼핑 지역 형성 사업’으로, 미술관이나 디자인 관련 시설이 집중돼 있는 록본기의 지역성을 살려 ‘Art & Design’을 주제로 한 경관 정비나 이벤트 개최임.

·록본기 힐즈, 국립 신(新)미술관, 도쿄 미드타운 방문객을 인근 상점가에 방문하도록 유도함.

·주요 계획은 신진 디자이너 지원, 포토 콘테스트 개최 등 새로운 거리 이미지 만들기, 록본기 브랜드 상품 및 서비스 개발 지원 등 록본기 상가의 매력 높이기, 고속도로 디자인 조명 설치 등 록본기 교차점의 경관 개선임.

- 두 번째 모델 사업은 ‘이타바시(板橋) ii 프로젝트’로, 주(住)·공(工)·상(商)이 혼재하는 지역 특성을 살려 지역 방문자 증가를 도모하고 지역 커뮤니티 창조를 목표로 함.

·주요 계획은 지역의 매력을 지역 내외로 전파, 지역 커뮤니티 거점 설립, 기업이나 학교 등과 제휴한 이벤트 개최 등임.

(www.metro.tokyo.jp/INET/OSHIRASE/2008/06/20i62500.htm)

10. 市 방문자 중 비즈니스 관광객이 절반 (브라질 상파울루市)

○ 상파울루市에서 개최되는 박람회 건수는 1년에 총 119건으로 평균 3일마다 한 번씩 박람회가 열림. 2008년 4월 개최된 각종 미용품 박람회인 ‘헤어 브라질’에 총 7만 5000여 명이 참석해, 관광객 수는 2007년 대비 23% 증가함.

- 박람회 규모가 커지면서 방문객 수만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내수시장과 수출거래 수도 증가하고, 수백만 개의 일자리도 창출되며, 시내 관광업도 덩달아 성장하고 있음.
- 상파울루市를 방문하는 외국인과 브라질 내 관광객 중 절반이 비즈니스 목적으로 방문함.
 - 이들은 평균 3.5일을 상파울루市에 머물며 하루 평균 207헤알(약 10만 원)을 지출함. 일반 관광객은 평균 5일을 상파울루에 머물지만 하루 평균 지출비는 167.33헤알(약 8만 5000원)로, 비즈니스 관광객보다 더 적게 씀.
- 브라질에서 개최되는 박람회는 지난 16년간 그 규모와 거래 건수가 4배 이상 성장했으며, 2008년에는 34억 헤알(약 2조 원) 상당의 자금이 유통될 것으로 보임.
 - 2008년 한 해 동안 박람회 관람 및 거래로 520만여 명이 브라질을 방문·관광할 것으로 전망됨.

(www.estadao.com.br/economia/not_eco176974,0.htm)

행정 · 재정

11. 행정·사업비용 항목 28% 삭감 (상하이)

- 상하이市는 2008년 하반기부터 행정·사업비용 148개 항목을 징수하지 않겠다고 발표함. 이렇게 함으로써 市가 징수하는 행정·사업비용 전체 531개 항목에서 28%가 삭감돼 약 20억 위엔(약 3000억 원)을 절약하게 됨.
- 이번 정책은 공공부문의 낭비요인을 제거해 행정비용을 최대한 절감하고, 행정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취지에서 시행됨.

- 행정·사업비용은 국가행정기관과 사회단체 등이 특정 서비스 대상에 행정관리나 서비스 제공 시 받는 비용임.
- 행정비용은 관리비, 등기비 및 수속비, 심사 및 평가비, 증명비 등이고, 사업비용은 서비스 보상비, 사회복지비, 검사·측정비 등임.
- 상하이市는 이번에 행정·사업비용 항목을 없애면서 절감되는 돈을 서민경제 안정과 취업 및 투자환경 개선 등 주요 현안사업에 재편성할 예정임.

(www.sh.xinhuanet.com/2008-06/04/content_13459641.htm)

12. 대런던위원회를 대표하는 국제사무소의 효율적 이용 (런던)

○ 최근 새로 당선된 보리스 존슨(Boris Johnson) 런던시장은 대런던위원회(Greater London Authority)를 대표하는 국제사무소를 전략적·경제적 관점에서 평가함.

- 부시장은 대런던위원회의 브뤼셀 지점을 방문해 직원들과 면담을 가짐.
- 현재 대런던위원회는 카라카스, 델리, 뭄바이, 베이징, 상하이, 브뤼셀에 6개 지점을 뒀고, 모스크바에는 자문위원회를 두고 있음.
- 런던시장은 평가를 통해 런던市를 대표하는 국제사무소의 전략적 운영과 기능, 경제적 가치를 최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함.
- 인도와 중국의 국제사무소는 런던市 내부투자를 유치하고, 고용을 늘리며, 비즈니스 기회를 많이 제공하는 데 주력할 계획임.
- 정부의 경제 관련 외교부서 등 여러 기관의 협조 아래 런던市를 비즈니스하기 좋은 최고의 장소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www.london.gov.uk/view_press_release.jsp?releaseid=17076)

13. 대중교통 이용 안전을 위한 전담반 설치 (런던)

- 런던시는 대중교통 시설의 안전 도모와 범죄 예방을 위해 대중교통 시설이나 버스정류장을 순찰하는 전담반을 설치함.
 - 이는 대중교통 시설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예방하겠다는 런던시장의 확고한 의지 표명임.
 - 경찰 440명으로 구성된 전담반이 설치됐고, 경찰 1600명의 협조를 받게 됨.
 - 전담반은 런던시 주요 인터체인지와 문제 지역 순찰을 통해 경범죄를 해결함. 이를 통해 런던시민이 몸소 안전을 체험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할 계획임.

(www.london.gov.uk/view_press_release.jsp?releaseid=16933)

14. 지하철에 안전감시시스템 설치 (상하이)

- 현재 상하이시 지하철 일일 이용객은 실제 운용능력의 15%를 초과한 약 300만 명으로, 승객의 안전이 심각히 위협받는 상황임. 이에 상하이시는 2008년 5월 23일부터 승객이 지하철에 탑승할 때부터 역사를 빠져나가는 순간까지 전 과정을 모두 녹화해 기록하는 시스템을 가동하기로 결정함.
 - 현재 50여 곳에 설치된 CCTV 카메라를 향후 전 역에 집중 설치해 사고 발생 시 수사 자료로 활용할 예정임.
 - 휴대가방 검사를 위한 X선 검색대를 새로 설치해 안전검사를 강화함. 큰 가방을 휴대한 승객은 반드시 전용통로에서 휴대품 검사를 받아야 함.
 - 지하철 외에 모든 시내버스에 안전감시시스템을 설치할 예정임.

- 베이징올림픽의 축구경기 중 12개 경기가 상하이에서 열리면서 범죄 예방 및 보호를 강화하기 위함임. 교통국은 경찰서와 구체적인 내용을 협의해 주요 노선에서 시범 운용하고 있음.

(www.sh.xinhuanet.com/2008-05/23/content_13340949.htm)

도시 환경

15.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택시산업에 100만 파운드 지원 (런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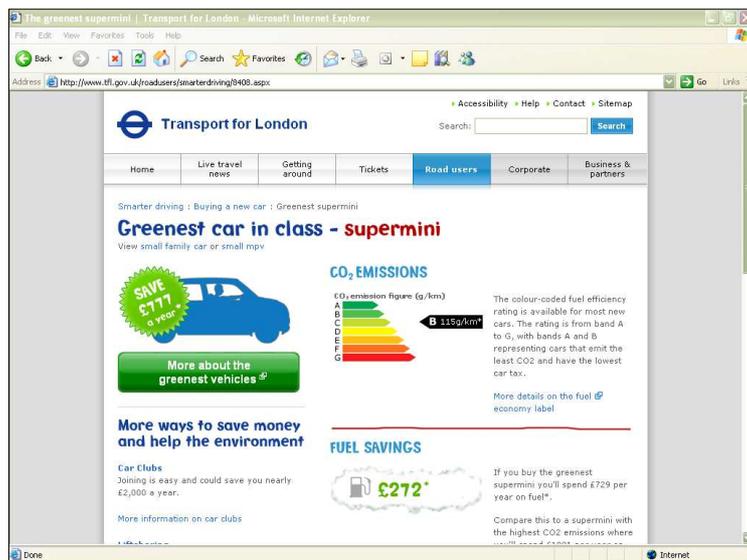
- 런던교통공사는 2만 1000여 대의 블랙 캡(독특하고 전통적인 디자인의 공인 택시)의 탄소 배출을 저감하기 위해 100만 파운드(약 20억 원)를 지원하기로 함.
 - 우선 택시 제작사가 저탄소 배출기술을 개발하도록 지원하며, 런던 시내에 저탄소 택시 전시사업도 추진함.
 - 현재 택시와 민간 대여차량은 시내 교통부문의 탄소발생량의 4%를 차지함.
 - 런던시장은 저탄소 배출기술을 지원하면서 대기오염 물질도 제거하고, 소음이 적은 차량 제작기술도 함께 지원·발전시켜, 결과적으로 런던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힘.
 - 저탄소 기술로는, 차량이 멈추면 엔진이 자동으로 멈추고 가속기를 밟으면 시동이 자동으로 걸리는 Stop-start나 마이크로 하이브리드(Micro-hybrid) 기술이 있음.
 - 런던교통공사에 따르면, 런던 택시는 운행시간의 40%를 승강장이나 신호, 승객 승하차시 대기 등 정차에 보내고 있어, 마이크로 하이브리드 기술이 도입될 경우 탄소 배출은 물론 연료 소비도 10~15% 줄어들 것으로 기대됨.

(news.bbc.co.uk/1/hi/england/london/7434950.stm)

16. 차, 친환경적인지 따져보고 삽시다 (런던)

○ 런던교통공사는 홈페이지에 새 차를 살 때 주의할 점과 등급별 연료 소비율 등을 확인해볼 수 있도록 함.

- 홈페이지에서 '새 차 사기'를 클릭하면 소형 자동차나 미니밴 등 차량 종류를 선택할 수 있고, 해당 등급을 클릭하면 등급별로 구매 시 참고요령을 알기 쉬운 이미지로 제공함.
- 초소형 차량의 경우 동급 차량 중 가장 환경적으로 우수한 차종을 선택하면, 연간 절약할 수 있는 비용인 약 777파운드(약 157만 원)가 가장 먼저 제시됨. 오른쪽에 1km 주행 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량이 등급으로 표시된 후, 연료·자동차세·자동차보험료 절약분이 금액으로 제시됨.
- 동급 차종 중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가장 많은 차량과 비교하여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량도 표시됨.
- 홈페이지 왼편 상단에는 환경도 살리고 가정 경제도 살릴 수 있는 대안인 카클럽이나 카풀 사이트가 링크돼 있음.



초소형 차량 구입 시 탄소배출 및 환경친화차량 구입으로 절약 가능액 제시

(www.tfl.gov.uk/roadusers/smarterdriving/8407.aspx)

17. 자전거도로 만들기 200년 계획 시행 (오하이오주 콜럼버스市)

- 오하이오주 콜럼버스市는 자전거 이용자 천국을 만들고자 ‘자전거도로 200년 계획’(Bicentennial Bikeway Plan)을 발표함.
 - 기본적으로 자전거 이용자를 최우선으로 하는 계획이지만, 동시에 자전거와 승용차가 공존할 수 있도록 도로를 넓히고 재포장함.
 - 도시 곳곳에 자전거 거치대를 확대·설치하고 다운타운에 자전거 정류장을 만들어 통근자가 자전거를 두고 출근할 수 있도록 함. 또한 시민이나 여행객이 자전거를 빌릴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임.
 - 市는 자전거 이용자와 차량 이용자가 서로 존중하며 도로를 안전하고 질서 있게 이용하도록 캠페인을 통해 시민 교육에 힘쓸 계획임.

(www.dispatch.com/live/content/local_news/stories/2008/05/19/Bikeplan.ART_ART_05-19-08_B1_4HA85RC.html?sid=101)

18. 고객의 입장에서 대중교통 서비스 질 평가 (워싱턴 D.C.)

- 워싱턴 D.C. 메트로위원회는 대중교통 서비스의 질을 평가하고 개선하기 위해 ‘미스터리 라이더’(Mystery Rider) 제도를 도입하기로 함. 이를 위해 5년간 100만 달러(약 10억 원)의 예산 지출을 승인함.
 - 미스터리 라이더는 미스터리 쇼퍼(Mystery Shopper)처럼 비밀리에 전철과 버스를 이용하면서 고객의 시각에서 청결도, 정시 출발·도착 여부 등의 서비스를 평가해 평가내용을 피드백해주는 역할을 함.

-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이미 매월 3000여 건 이상의 불만사항이 접수되는 상황에서 미스터리 라이더가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고도 함.
- 하지만 고객의 불만이 접수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먼저 불편사항을 찾아내 개선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함.

(www.washingtonpost.com/wp-dyn/content/article/2008/04/24/AR2008042403382.html?referrer=emailarticle)

19. 혼잡통행료 실시 (영국 맨체스터市)

- 영국 랭커셔州 맨체스터市는 런던市에 이어 혼잡통행료를 부과하기로 함. 영국 정부는 이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맨체스터市는 교통혁신기금(Transport Innovation Fund) 조성을 위한 입찰을 진행 중임.

- 계획이 성사되면 10억 2000만 파운드(약 4조 4000억 원)가 교통인프라에 투자될 예정이며,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혼잡통행료도 경감하게 됨.
- 교통혁신기금과 혼잡통행료 시행을 통해 시민이 최상급의 대중교통 시스템을 이용하도록 하고, 다른 시간대 이동하게 함으로써 혼잡을 막아 20% 빠르게 이동하게 함.

(www.regen.net/bulletins/Regen-Daily-Bulletin/News/815228/Manchester-poised-congestion-charge/?DCMP=EMC-Regen%20Daily%20Bulletin)

20. 센강을 오고가는 대중교통 선박 운영 (파리)

- 파리市는 2008년 6월 28일부터 센강에서 대중교통 선박을 운영함.
- 市는 환경친화적이고 경제적인 교통수단 개발을 목적으로 2003년에 처음 선박운행 연구를 시작했음. 그 후 2년간의 시험운행이 있었으며, 이번에 정식으로 정기노선이 개통됨.

- 약 70명이 승선할 수 있고, 요금은 3유로(약 4800원)로 교통 정액권을 가진 사람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음.
- 배에는 난방시설이 갖춰졌으며, 장애인도 접근하기 쉽도록 설계됨.

- 市는 2010년까지 노선을 더욱 확장해 센강 전 구간을 운행할 계획임.
- 이를 위해 2008년을 기준으로 전년도에 비해 27% 증가된 약 3억 2630만 유로(약 5조 2208억 원)의 예산이 수립됨.

(www.paris.fr/portail/deplacements/Portal.lut?page_id=2&document_type_id=2&document_id=52397&portlet_id=826)

21. 자전거 무료 임대 공익사업 실시 (상하이)

- 상하이市 주요 대학에 자전거 무료 임대 서비스가 2008년 5월 말부터 시행됨. 이 서비스는 중국 최대 미디어개발회사인 IBIKE MEDIA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전거를 무료로 임대해 주는 공익사업임.

- 학생증으로 회원접수를 하면 자전거 무료 대여소 어디에서나 자전거를 빌리고 반환할 수 있어 편리함.
- 자전거 무료 보관소 지붕에는 태양열 발전을 위한 열판이 설치돼 환경친화적이라는 평가를 받음.
- 자전거 대여소는 현재 30여 개 대학 내 300여 개의 대여소가 설치돼 있고, 약 1만여 대의 자전거가 운용되고 있음.
- 경제특구 6개 지역 약 400여 개 주거단지에서는 2008년 6월부터 서비스가 우선 시행됨.
- 베이징 올림픽이 개최되는 2008년 8월까지 학교, 주거단지, 지하철 부근, 주요 상업지역 등지에 약 1000여 개의 자전거 무료 대여소를 설치할 계획임.
- 市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 실행으로 약 200만여 명의 시민이 편의를 제공받을 것으로 전망함.

(www.sh.xinhuanet.com/2008-06/02/content_13428627.htm)

22. 최상의 공공서비스 제공 위해 ‘상호이해를 위한 협약’ 체결 (런던)

- 런던시는 런던시민에게 최상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와 ‘런던 자치구 연합’(London Councils)과의 협력을 약속하는 새로운 원칙에 동의함.
 - 이 원칙은 ‘상호이해를 위한 협약’(Memorandum of Understanding)으로, 런던시와 자치구의 관계 향상을 통해 런던시민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함.
 - 런던 자치구를 대표하는 런던시의원은 33개 자치구의 현안에 관여하며, 매년 최소 2번씩 런던시장과 만나 자치구의 현안과 도전에 대한 토론함.
 - 런던시민을 위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공서비스 관련 책임자와 면담을 하고 실현방안을 논의함.
- 런던시장과 런던자치구 연합의 공조는 현재 런던의 현안을 해결하고, 런던의 다양한 커뮤니티의 필요와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것임.

(www.london.gov.uk/view_press_release.jsp?releaseid=17273)